



꽃피는 이 봄날, G334 국도로 주말 여행 떠나보자

저명한 문화학자 몽만씨는 어느 한 인터뷰에서 “길림의 여름, 가을, 겨울을 이미 경험했으며 2026년에는 G334 국도를 따라 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겠다.”고 전했다. 길림성 ‘제 15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이 문화관광 대동맥은 과연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을까?

청명절 연휴가 지났다. 인파에 지친 당신에게 봄빛이 가득한 주말 고봉시간대를 피한, 아이와 함께인 여유로운 시간 여행을 제안한다. 항일련군의 흔, 황금의 역사, 울창한 숲의 또 다른 재미를 품고 있는 숨겨진 보물 같은 G334와 함께 느긋한 여행을 즐기기를 바란다.

아래 ‘홍(紅), 금(金), 록(綠)’ 세가지 색이 어우러진 이 보물 로선을 소개한다. 주말, 피크 시간을 피해 출발해보자!

G334 국도는 총길이 1,318 키로미터, 동쪽의 길림성 통정에서 시작해 서쪽 내몽골 동우진진기(东乌珠穆沁旗)까지 이어진다. 그중 길림성 구간만 895 키로미터로 장백산 기슭의 원시림, 송화강 기슭의 호수와 산빛, 그리고 곳곳에 위치한 홍색유적지를 연결한다. 이는 동북지역의 중요한 교통로이자 경제회랑일 뿐만 아니라 홍색기억, 군공정신, 생태경관이 어우러진 문화의 등줄기이기도 하다.

G334의 시작점인 통정시는 봄이 오면 5월의 배꽃과 함께 깨어난다. 드넓은 배밭의 하얀 꽃송이가 옥빛처럼 봄바람에 흩날리며 눈부신 아름다움을 뽐낸다. 하지만 이곳의 봄은 꽃뿐만이 아니다.

일본침략연변죄증관에 들어서면

력사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른다. 과거를 돌아보다 나면 배꽃 같은 오늘 의 평화로운 나날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처럼 꽃향기와 조짐, 부드러운 힘의 공존하는 통정의 봄은 그래서 더 특별하다.



서쪽으로 화룡시 진달래민속촌에 이르르면 연분홍 꽃송이가 언덕을 물들이며 꽃바다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그 사이에 자리잡은 약수동 항일기념지, 홍색유적지와 꽃물결이 어우러져 봄날의 아름다움을 의미할 더한다.

안도의 봄은 립체적이라 할 수 있다. 5월의 바람이 스쳐가면 신합향의 드넓은 들판은 눈부신 금빛으로 물든다. 바람에 하느자이는 민들레 꽃물결은 대지의 숨결 같다. 송화조선족민속촌에 들어서면 정감어린 민속 가옥과 농후한 조선족 풍정이 펼쳐진다.

돈화시의 한총령홍색관광구는 울창한 숲과 함께 홍색기억이 깃든

곳이다. 동북항일련군한총령밀영문화전시관에 들어서면 옛 사진과 유물들이 전쟁 시절로 우리를 안내한다. 또한 룡정산문화관광구에서는 천년의 문화의 맥을 탐방하며 자연과 인문이 어우러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G334 화전 구간, 울창한 숲 사이로 짙은 ‘금빛’ 기운이 살아난다. ‘중국 황금 제1광산’으로 불리는 자피거우금광은 1820년 심마니에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200여년의 채금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제 이곳은 백년 금광에서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난다.

중국황금박물관이 곧 개관함에 따라 백년의 금맥이 문화관광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이번 여름에는 관람, 견학, 휴식이 결합된 황금 주제 복합 문화관광시설이 G334 문화관광대로에서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된다. 봉인된 채 방지되었던 황금의 세월이 깊은 산속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



/유유길림

이 지역은 홍색기억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산수경관을 품고 있다. 홍색국가삼림공원은 자연의 산소림으로 백산호와 홍색호가 반짝이는 물결 위로 푸른 산의 모습을 반사하고 있다. 항일련군의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울창한 숲속 호자호밀영은 양정우 장군이 전투를 펼쳤던 장소로 복원된 야외지로서 취사실, 경계초소 등을 통해 당시 항일투쟁의 고난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G334를 따라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반석시 홍색라자 항일근거지 유적지가 푸른 산수 사이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동북항일련군 제1군의 요람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보존 상태가 완벽한 항일유적지중의 하나이다. 반석시항일투쟁기념관에서는 ‘홍색전운’ 주제 전시를 통해 불굴의 세월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G334는 홍색기억과 황금 이야기, 울창한 숲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항일유적지 앞에서 묵념하고 꽃바다 속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특별한 길이다. 울봄, 이 특별한 길에서의 여행이 당신과의 소중한 약속이 되기를 바란다!

/유유길림

봄날 한정! 전국 7개 도시서 ‘꽃료리’ 즐기기

따스한 봄 해살에 전국 곳곳에 꽃이 피어난다. 꽃을 구경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봄이요, 꽃을 먹는 것은 입으로 즐기는 봄이다. 아래 꽃향기를 따라 전국 7개 도시의 봄을 만끽해보자.

1. 운남 라평 유채꽃무침

라평의 봄은 온통 유채꽃으로 뒤덮인다. 이곳에서는 유채꽃으로 볶음, 무침, 계란후라이를 만든다. 국이나 튀김에도 유채꽃이 들어간다. 유채씨에서 짜낸 카놀라유는 평소 료리의 ‘기본’이기도 하다.

유채꽃을 료리로 즐기는 지역은 운남뿐만 아니다. 사천, 상해, 호북, 강서 지역에서도 봄철이면 유채꽃을 즐겨 먹는다. 조리법도 다양해 샐러드 브에 넣어 끓여 먹기도 하고 탐육(腊肉)과 함께 볶기도 하며 절여서 먹는 등 다양한 조리법이 있다.

2. 강소 소주 목련꽃튀김



봄이면 소주 길거리 곳곳에 목련꽃이 만개한다.

소주에는 일찍부터 목련꽃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 소주의 목련꽃은 주로 2, 3월에 피는데 이 시기에는 자주 비바람이 분다. 이에 목련꽃을 귀중하게 여긴 고대인들이 꽃잎을 모아 한잎씩 튀겨서 먹는 풍습이 생겨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 사천 반지화 목면화복음

사천 반지화시는 목면화 이름을 딴 도시다. 매년 2~3월 목면화가 필 때면 이를 활용한 제철 음식을 즐기기가 가장 좋다.

목면화 꽃술을 따서 물에 데친 후 랍육과 함께 볶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그리고 무침을 하면 천연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고 국이나 고기찌에 넣어도 향이 좋다.



4. 섬서 봉현 호두꽃볶음



섬서 봉현은 자연경관, 역사문화, 민속품속이 한데 어우러진 보물 같은 도시이다. 봉현은 호두의 주요 산지로 현지인들은 호두꽃도 밥상에 올린다. 호두꽃을 물에 데친 후 무침을 하면 그 향이 입안 가득 퍼진다. 랍육, 햄 등과 볶아도 맛이 일품이고 말려서 두면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다.

5. 하남 허창 회화나무꽃떡

허창의 봄날, 기온이 오르면서 회화나무꽃향이 바람에 실려온다. 허창 사람들은 신선한 회화나무꽃에 밀가루를 입혀 찐 다음 찹기름, 마늘, 고추기름으로 무치는데 그 맛이 일품이다. 회화나무꽃으로는 만두나 물만두 소도 만들고 계란을 섞어 꽃향기가 가득한 회화나무꽃떡을 만들기도 한다.

6. 귀주 귀양 복숭아꽃떡

귀양 영락향의 만무 규모 복숭아나무에 꽃이 만개하면 장관을 이룬다. 당초 때부터 복숭아꽃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 복숭아꽃은 지금도 수프, 떡, 술, 차, 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먹을 때마다 입안 가득 봄이 느껴진다.

7. 산둥 평음 장미꽃차



‘중국의 장미 도시’ 평음의 장미 재배는 1,3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봄이면 이곳은 장미가 만개해 수확철을 맞이한다. 장미꽃은 술, 차를 비롯해 찜, 장미수 등을 만들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인민넷

图说 我们的价值观

富强民主文明和谐
自由平等公正法治
爱国敬业诚信友善

与人为善 一路吉祥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陕西户县 王文吉 创作